

2000년대 4·3문학의 양상과 의미

김 동 윤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기존 연구에서 4·3문학의 흐름은 ①'비본질적·추상적 형상화 단계'(1948~1978년), ②'비극성 드러내기 단계'(1978~1987년), ③'본격적 대항담론의 단계'(1987~1999년), ④'새로운 모색의 단계'(2000년~)로 정리된 바 있다. 이 글은 잠정적으로만 논의된 네 번째 단계(2000년대)의 4·3문학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특징적인 면모를 찾아보는 한편, 향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씌어졌다.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 분야에서는 창작 주체의 세대교체 현상과 더불어 시조 작품들의 약진이 주목되는 가운데, 제주어가 성공적으로 구사된 작품들이 적잖이 포착되었다. 앞으로는 4·3의 메시지를 내면화하는 시, 4·3장편서사시 등의 창작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소설에서는 장편이 비교적 많이 나왔다. 공간의 확산(디아스포라적 접근)을 도모한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점, 연애의 서사와 복수 모티프가 적극 활용된 작품이 나온 점 등도 특징적인 면모다. 이제는 역사성과 대중성을 함께 만족시키는, 과감한 상상력이 발휘된 작품이 젊은 작가들에 의해 씌어져야 할 시점이다.

희곡 분야는 2000년대 초입에 몇 편이 나온 이후 주춤했는데, 이는 4·3장편영화의 출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예전의 4·3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장편동화(소년소설)들이 연이어 출간됨으로써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4·3의 지속적인 기억투쟁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2000년대 4·3문학은 '전환기적 모색과 다양한 담론의 단계' 정도로 명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4·3에 대한 공식역사가 재규정되고 4·3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문학의 양상도 기존의 대항담론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변화된 담론의 전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2000년대 4·3문학의 양상과 의미*

1. 들머리
2. 시의 다양성과 가능성
3. 소설 공간의 확산과 대중적 서사의 모색
4. 희곡의 침체와 장편동화의 출현
5. 마무리

1. 들머리

‘제주4·3사건’¹⁾ 문제는 2000년대 들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한 데 이어,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최종 확정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은 10월 31일에 국가권력의 과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가 하면, 2006년 4월 3일에는 제58주년 위령제에 참석하였다. 정부의 보고서 확정과 그에 따른 대통령의 행보는 의미가 매우 컸다. 오랫동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군림해왔던 공식역사에서 의 ‘4·3공산폭동론’이 공식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된 셈이다. 4·3의 진실을 밝히는 대장정의 큰 고개를 하나 넘어선 것이다. 2000년대 후반 정권이 바뀌면서 보수우익의 창궐로 4·

* 이 글은 『제주작가』 제33호(2011년 여름호)에 발표된 「2000년대 4·3문학의 점검」을 읽고 보태어 작성한 것이다.

1)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주4·3사건’으로 명명하고 있음. 이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3’으로 칭함.

3 흔들기 시도가 계속되었으나, 역사의 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법이다. 4·3운동의 장정(長征)은 장강의 도도한 흐름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4·3문학도 이러한 흐름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동윤은 4·3문학의 시기를 네 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그 구분의 계기나 기점이 되는 것은 「순이 삼촌」과 「6월항쟁」 그리고 「4·3특별법」이다. 즉, 4·3이 발발한 시점에서부터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이 발표되기 전까지를 그 첫 번째 단계, 「순이 삼촌」이 발표된 시기부터 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그 두 번째 단계, 6월항쟁 이후 4·3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를 그 세 번째 단계,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를 그 네 번째 단계로 나누고, 첫 번째 단계를 「비본질적·추상적 형상화 단계」(1948~1978년), 두 번째 단계를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1978~1987년), 세 번째 단계를 「본격적 대항담론의 단계」(1987~1999년), 네 번째 단계를 「새로운 모색의 단계」(2000년~)로 각각 명명하였다.²⁾

그런데 이전의 다른 단계에 비해 「새로운 모색의 단계」의 경우는 과제와 전망을 겸한 간단한 언급에 그쳤다. 이제 「새로운 모색의 단계」라는 이름이 어색해질 정도로 시간적으로도 10년 이상 흘렀으니, 이 단계의 문학도 본격적으로 정리할 때가 되었다. 그 명명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기실 2000년 이후의 변화된 사회적 상황은 문학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대체로 「본격적 대항담론의 단계」에서의 문제의식과 흐름³⁾을 이어받으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

2) 김동윤, 「4·3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34-73쪽.

3) 김동윤은 「본격적 대항담론의 단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6월항쟁 이후 전개된 「본격적 대항담론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대항담론이 공식역사에 확실히 맞서는 양상을 보인다. 소설에서는 현기영·

하는 움직임들이 다각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2000년 이후에 전개된 4·3문학의 양상에 대해 장르별로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그 특징적인 면모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는 4·3문학의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2. 시의 다양성과 가능성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4·3의 의미를 포착하는 시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그 가운데에서도 4·3을 다룬 작품만을 모아 시집을 펴낸 김경훈과 강덕환의 작업이 단연 눈길을 끌었다.

김경훈은 동시에 펴낸 시집 『한라산의 겨울』(2003)과 『고운 아이 다 죽고』(2003)를 통해 현장에서 얻어진 참혹하고 기막힌 상황들을 날것으로 내보였다. 시인이 “독자들에게는 외람되지만 하루에 네 편 이상은 읽지 마시라고 권”⁴⁾했을 정도로 끔찍한 면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작품들이 두 시집에 실렸다. “자귀로 닥닥/칼로 속속//전각이요후각이요대가리요족발이요/좌갈리요우갈리요승이요생간이여” 하면서 사람을 “소 돼지 잡듯” 갈라놓고

현길언·오성찬 중심의 작업에 고시홍·한림화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김석희·오경훈·김관후 등도 가세하면서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장편 소설을 통한 4·3 형상화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시에서도 반미·반제 성격의 작품, 소년기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 진상규명운동 차원과 연결하면서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작품, 가족사를 연작 시로 엮은 작품 등 다양한 경향의 작품이 발표됐다. 회곡에서는 장일홍·김경훈 등의 작품이 나왔고, 제주청년문학회를 필두로 운동으로서의 4·3문학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4·3 관련 역사기록물과 저널리즘 기획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멀어져간 독자의 관심을 붙들만한 4·3문학이 부각되지는 못했다.”

- 4) 김경훈, 「책머리에—나의 노래」, 『한라산의 겨울』, 삶이 보이는 창, 2003, 5쪽.

(「분육」), “서방이 산에 올랐다고/대창으로 찢러 죽일 때 뱃속의/태아가 꿈틀거리자 재차 총으로 쏘”고(「자살」), 일본도로 내리쳐 “몸뚱이에서 분리된 대가리가/때굴때굴 저 혼자” 굴러가고(「참수」), 회를 치듯이 난도질해 “골이 칼질에 묻혀 창문 밖으로 튀”어나가고(「난도질해서」), “일어서지 않는다고/(...) 두 다리/자귀로 잘라버리고”(「두 다리 잘려」), “산에서 잡힌/아들의 목을 잘”라서 “어머니더러/구덕에 목 담아/ 알몸으로/ 내려가게” 하는(「목」) 상황이 처절하게 그려졌다. 4·3만을 다룬 시집이 이전에도 여러 권 출간된 적이 있지만 김경훈의 시집들처럼 적나라하게 사태의 면면을 드러낸 경우는 없었기에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김경훈은 적잖은 4·3시들이 수록된 『삼돌이네 집』(2007)과 4·3만을 다룬 세 번째 시집인 『눈물 밥 한솥 잉걸』(2008)을 펴냈는데, 충격요법의 구사는 줄었으나 4·3을 날것으로 선보이려는 시인의 작의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강덕환의 『그해 겨울은 춥기도 하였네』(2010)는 두 가지 면에서 주목되는 시집이다. 그 첫째는 제주어(濟州語)의 유효적절한 구사가 돋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집이 군인덜 들어완/애죽아신 고라, 찬물 도랜허난/츄물은 바당에 가사 쏘주 허멍/정지에 강 써닝헌 물 거려단 안네난/이게 찬물 아니넨 허멍 개머리판으로/물항을 팟삭 벌러부렀젠게 윈, 모실포서”(「목마른 자는 항아리를 깨트린다」)에서 보듯, 육성중언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의 탁월한 제주어 구사는, 제주어로 말하는 4·3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4·3의 속살을 알 수 없다는 신념의 소산으로 보인다. 그 둘째는 이름 없이 떠도는 영혼들에 대한 형상화가 두드러지다는 것이다. “이름 석 자 얻어갓지 못한 채/(...)죽어간/山心이의 딸”(「산심이의 딸」), “끓어 죽은 축산이”(「탄생설화」), “이름조차 호적부에 올리지 못한 물애기”(「현의합장묘」), “담돌에 매다 쳐버린 그 물애기”(「산불근 해불근」), “호적에 올리기도 전에 4·3사건 나”서 “난리통에 죽어”버린 남자(「호적 찾기」), “이름도, 나이도 가지지

못한” 사팔이(「사팔이」) 등 힘없는 무명씨들이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다고 시인은 말한다. 시인은 이름을 갖지 못했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들의 죽음이 현실에서 거의 기억되지 못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4·3의 비극성과 올바른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덕환과 김경훈의 이러한 작업은 이른바 ‘386세대’⁵⁾가 2000년대 4·3시의 최전방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운동과 투쟁만이 아닌 문학과 예술에서도 이들이 4·3을 당당히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4·3문학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들보다 조금 연상의 시인들 중에선 허영선과 김수열을 주목할 수 있다. 이 두 시인은 모두 1980년대 초반에 등단한 중견이다. 이제 이들의 4·3시에서는 묵직함이 느껴진다.

허영선의 『뿌리의 노래』(2004)는 4·3만을 다룬 시집은 아니지만, 주로 4·3시를 수록하고 있다. 체험자들을 직접 만나 구술 채록한 이야기에 바탕을 둔 작품들이 많은 바, 여성 특유의 감성으로 역사와 삶을 보듬으면서 건져 올린 시편들이라고 할 수 있다. 4·3으로 인한 여성들의 수난과 희생을 웅숭깊은 정서적 울림을 통한 증언으로 포착함으로써 4·3시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명천 할머니」·「1993년 5월, 고 할머니」·「꿈인 거 맞지요」·「죽은 아기를 위한 어머니의 노래」 등이 바로 그런 작품들이다.

김수열은 『신호등 쓰러진 길 위에서』(2001)·『바람의 목례』(2006)·『생각을 훔치다』(2009) 등에서 지속적으로 4·3시들을 선보였다.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에서는 소설의 현기영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던 김수열의 시는 비장하면서도 정서적 공감에 소홀하지 않는다. 아울러 “학교 창고 닳은 텐데 조그만 방이 하나 이셨수다/물애긴 안고 세 살 난 건 업고 방에 들어강 전기 취조를 받아십주/양 손목에 전깃줄 감고 파시식! 파시식!안 당해본

5) 강덕환은 1961년생, 김경훈은 1962년생으로, 각각 80학번·81학번이다.

사람은 모릅니다/전기를 손으로 이래 확 돌리면 차르륵! 저래 확 돌리면 차르륵!”(「차르륵! 차르륵!」)에서처럼 제주어와 절묘하게 만난 4·3의 진실이 주목된다.

이밖에도 김용길의 『바다와 섬의 이중주』(2000), 문충성의 『허공』(2001)·『망각 속에 잠자는 돌』(2002)·『허물어버린 집』(2011), 강통원의 『돌하르방』(2002)·『빛과 그늘』(2010), 오승철의 『누구라 종일 흘리나』(2009), 오영호의 『화산도, 오름에 오르다』(2005), 고정국의 『서울은 가짜다』(2003)·『지만 울단 장쿨래기』(2004), 김광렬의 『풀잎들의 부리』(2005), 양영길의 『가랑이 사이로 굽어 보는 세상』(2005), 문무병의 『날랑 죽건 닥밭에 문영』(2000), 문영종의 『물의 법문』(2010), 김관후의 『함덕리』(2001), 김순남의 『그대가 부르지 않아도 나는 그대에게로 간다』(2010), 김석교의 『봄날 아침부터 가을 오후까지』(2009), 김규중의 『딸아이의 추억』(2002), 양전형의 『나는 돌이다』(2004), 김희철의 『끝나지 않은 제주아리랑』(2000)·『침대높이』(2003)·『잃어버린 파일』(2003), 김성주의 『비·바람의 길』(2000)·『구멍』(2010), 정군철의 『수목한계선』(2003)·『물집』(2009), 안정업의 『슬픈 합의에 대한 서명』(2000), 김상신의 『마지막 고드름』(2006), 이애자의 『송악산 염소똥』(2006)·『밀리언 달러』(2010), 장영춘의 『쇠똥구리의 무단횡단』(2008), 양인택의 『산이 산을 향해 자리하듯』(2001), 강상돈의 『별꽃 살짝 물들여 놓고』(2004), 김영기의 『갈무리하는 하루』(2010), 한희정의 『굿모닝 강이지풀』(2009), 홍경희의 『그리움의 원근법』(2010), 김영미의 『달과 별이 섞어놓은 시간』(2010), 고춘옥의 『호랑이 발톱에 관한 제언』(2008), 김순선의 『위태로운 잠』(2010) 등 4·3시가 몇 편씩 실린 시집들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제주의 시인들이 근래 내놓는 시집에는 대부분 4·3을 다룬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여기에서 보면, 시조 분야의 약진이 꽤 두드러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전의 '본격적 대항담론의 단계'에서도 오승철·

오영호·고정국·고성기·문태길·홍성운 등의 4·3시조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2000년대 들어 다양하고 본격적인 작품들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오승철·오영호·고정국⁶⁾·홍성운 등의 중견 작가들의 작품은 더욱 묵직해졌고, 강상돈·이애자·장영춘·한희정·홍경희·고춘옥 등 신인 작가들은 새롭고 구체적인 감각의 작품을 생산해냈다. 4·3문학에서 시조의 위상을 어느 정도 각인시키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2000년대 이후 많은 시인들이 4·3을 작품화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나 울림의 진폭은 차이가 적지 않다. 항쟁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작품도 있지만, 수난상과 상흔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거나 화해와 상생에 초점을 둔 작품도 많고, 여전히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매우 깊은 성찰에서 치열하게 쓴 작품도 있고, 피상적인 인식에서 상투적·의례적으로만 접근한 작품도 없지 않다.

이상에서 볼 때 2000년대의 4·3시에서 주목할 사항은 제주어의 성공적인 구사가 포착된다는 점이다. 4·3의 기구한 상황과 제주어의 언어적 특성을 적절히 연결시키는 작품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르적 특성에서 볼 때, 앞으로도 제주어의 문학화 작업은 시에서 더욱 빛을 발하리라고 본다. 다만 본풀이와 민요 등 제주의 전통적인 양식을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방식에 좀 더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케냐의 작가 응구기 와 씨옹오(Ngũgĩ wa Thiong'o)가 영어로 작품 쓰기를 그만두고 모국어 창작으로 전환하면서 구비 전통에 젖줄을 대었다⁷⁾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4·3시 전반에서 본다면, 앞으로는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
- 6) 특히 고정국은 '사투리로 쓴 서사시조'를 표방하며 『지만 울단 장쿨래기』를 내었는데, 이 시조집의 앞부분에는 4·3 관련 작품이 몇 편 수록되었다. 제주어로 형상화된 4·3시조라는 면에서 눈길을 끌었다.
 - 7)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것. 응구기 와 씨옹오, 이석호 옮김,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문학』, 인간사랑, 1999.

역사적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는 작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4·3을 둘러싼 메시지는 현실의 걱정으로서만이 아니라 오래오래 사람들의 심중을 흔들어 올리는 정서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에 주목한 작품, 예컨대 4·3 장편서사시도 기대해 볼 시점이다. 4·3의 와중에 북한에서 창작된 강승한의 「한나산」(1948)과 전두환 정권 말기에 나온 이산하의 「한라산」(1987)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도 뚜렷했기 때문이다. 전자는 4·3을 인민공화국 수립을 전제로 한 통일운동으로 형상화하였고, 후자는 반미와 정권 퇴진 투쟁을 지향함으로써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제주 출신 시인에 의한 4·3 장편서사시가 발표된 적이 없음⁸⁾을 감안하면 새로이 전개되는 현실에 걸맞은 작품이 나올 때가 되었다고 본다. 4·3 증언 채록을 바탕으로 '4·3 만인보(萬人譜)' 같은 형식도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허영선의 '여인 열전'⁹⁾은 그 가능성을 시사한다.

3. 소설 공간의 확산과 대중적 서사의 모색

소설에서는 우선 장편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이전까지 간헐적으로 출간되던 4·3 장편소설¹⁰⁾이 2000년대 들어 꽤 여러 편 나왔다.

-
- 8) 제주청년문학회의 「용강마을 그 피어린 세월」(1990)이 있었지만, 이는 공동창작이었다.
 9) 허영선의 『뿌리의 노래』에는 제1부에 '여인 열전'이라는 제목 아래 여성들의 4·3 체험을 형상화한 작품이 17편 수록되어 있다.
 10) 이전에 나온 4·3 장편소설은 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1991), 현길연의 「여자의 강」(1992)·「한라산」(1995), 오경훈의 「침묵의 세월」(1997)과 북한소설인 김일우의 「섬사람들」(1988)이 전부다.

오성찬의 『죽은 장군의 증언』(2000)은 4·3 당시 국방경비대 연대장이었던 김익렬의 행적을 그린 작품이고, 노순자의 『백록담 연가』(2000)는 4·3 관련 연재를 부탁받은 인물이 제주도를 취재하면서 사태의 비극에 접근하는 장편이다. 이 두 작품은 2000년대의 장편들이면서도 기존 작품의 성과를 넘어서는 인식이나 전망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예컨대 『죽은 장군의 증언』은 김익렬 회고록의 소설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작가의 상상력이 의미 있게 발휘되지 못하고 회고록에 간히고 말았음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2003)은 사태 후 40여 년이 지난 1980년대 초 무렵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풀어내는 작품이다. 폭력적으로 정권을 수립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의 새로운 명분을 만들기 위해 ‘역사 씻기기’ 사업에 돌입하면서 육지부 심방들을 불러들인다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설정 자체가 어색한 게 우선 문제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4·3의 구체적 진실보다는 보편적이고 관념적인 문제에 작가의 관심이 기울어진 듯하여, 4·3문학으로서의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고은주의 『신들의 황혼』(2005)은 4·3의 비극과 설문대할망설화, 인천상륙작전과 연희고지전투, 1960년대의 부산과 2000년대의 서울·제주·오사카 등을 오가며 현대사와 가족의 의미 등을 포착해낸 작품이다. 신화와 역사와 현실을 넘나들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놓고, 세대간의 단절과 연속에 주목하면서 공간과 인식의 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침체된 4·3소설계에 나름대로 가능성의 싹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김시태의 『연복정』(2006)은 조천지역의 역사와 자연에 대한 면밀한 탐색을 바탕으로 4·3을 조명해 내었다. 김현준과 지인숙은 정열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꽃피우지만 4·3 봉기가 시작되면서 입산 투쟁의 와중에 만남을 지속하지 못한다. 청춘남녀의 사랑을 4·3의 한복판에서 의미 있게 포착한 점은, 좀 더 극적으

로 엮어내지 못했다는 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길지의 『태양의 눈물』(2009)에서는 하원마을에 휘몰아친 광풍이 작가의 분신 격인 고소현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그려졌다. 해방과 더불어 귀향한 강정학의 끝없는 탐욕이 평화로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 훗날 강정학에 대한 복수가 시도되지만 종내에는 살해하지 않음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도 던진다. 체험에 의존해서인지 4·3의 면모를 폭넓게 접근하지 못하고 개인적 탐욕의 여파로 귀결시킨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조중연의 『길-투쟁 영역의 확산』(2009)은 4·3과 관련하여 역사 투쟁의 의미를 강조한 작품이다. 서북청년의 활동을 매우 구체화적으로 추적하였으며, 이덕구와 장두와의 연관관계를 만들고 장두의 전통을 부각시킨 점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역사적 과거와 현재 상황의 자연스럽지 못한 연결이 사건의 역동적 전개를 방해함으로써 독자를 흡인하는 힘이 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고봉황의 『비바리』(2010)에서는 4·3에서부터 비롯된 여인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녹아 있다. 남원읍 의귀리를 중심으로 송지하 여인의 사랑과 복수의 이야기가 4·3의 소용돌이에서 펼쳐진다. 송지하와 부시원과 박우찬의 애정 갈등 구도, 목장을 차지하려는 최영찬의 음모, 송지하를 노리는 강두식의 횡포 등이 종횡으로 얽혀 있는 작품이다. 극적 긴장도가 높은 데 비해 4·3에 대한 문제인식의 치열성은 다소 떨어진다.

북한소설인 양의선의 『한나의 메아리』(2000)는 최준오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이야기가 바깥에 있고, 강규찬·고진희 부부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이야기가 안쪽에 있는 작품이다. 특히 내부의 사건들이 4·3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데, 1948년 8월까지의 제주에서, 1948년 9월은 평양에서 투쟁담이 전개된다. 최근 북한에서의 4·3 인식 양상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연작이나 중·단편의 경우도 기존 작가들의 작품에 새로운 얼굴들의 활동이 보태어졌다. 오경훈·김관후·김창집·김길호·양영수 등의 소설이 그것이다.

오경훈의 연작 『제주항』(2005)에는 「유한」·「가신 님」·「기념탑」·「빌린 누이」에서 4·3의 다양한 양상이 그려진다. 「기념탑」에 나오는 아버지는 기구하게 사태를 겪은 인물이다. 그는 경찰 심부름을 하다가 무장대에 잡혀가서는 산에서 통신임무를 수행하며 민보단 습격에도 나섰다. 그러다가 토벌대에 붙잡혀 처형되기 직전 길라잡이를 자원함으로써 구명도생하였다. 무장대와의 교전 중 총상을 입자 그는 토벌대에도 쓸모없는 처지가 되었다. 4·3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 신고를 할 때도 아버지는 앞잡이 얘기는 빼라고 아들에게 주문하는데, 부실하게 작성된 신고서는 반려된다. 한편, 그의 아들은 베트남전쟁 참전 용사로서 고엽제 피해에 시달리는 인물이지만, 아직 공식적인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민중의 희생이 제주 4·3과 베트남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대물림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 작품이다.

김길호의 「이쿠노 아리랑」(2003)은 세 번 결혼한 고을생 여인이 중심인물이다. 고 여인은 첫 남편이 제주에서 4·3에 희생되면서 갓난애를 남겨둔 채 일본으로 떠난다. 두 번째 남편인 재일교포는 아들 하나 남기고 사망하고, 세 번째로 일본인과 결혼하여 역시 아들 하나를 낳는다. 제주의 아들은 베트남전쟁에서 희생되고, 둘째 남편 아들은 북조선을 선택하여 평양으로 간다. 일본 남편 아들은 일본에서 역사선생을 하고 있다. 이렇듯 이 작품은 “고을생의 4·3을, 기억이란 형식을 통해 재현하되, 지금까지 낫익은 4·3의 문제들로 포착하는 게 아니라, 일국중심의 민족문학의 심상지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지점에서 아시아의 평화적 가치와 연대, 그리고 분단체제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중층적으로”¹¹⁾ 보여준다.

양영수의 「부전자전 표류기」(2010)는 「그들의 부자유친」(2008)의 개작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으러 중국에 갔다가 못 만나 채 돌아온다는 게 이야기의 큰 틀인데, 아버지와 이산가족이 된 사연이 바로 4·3과 직접 관련이 된다. 아버지는 4·3 때 무장대 꼬나풀이었는데 입산예정자였다가 붙잡혔다. 가족들이 손을 써서 목숨을 부지한 아버지는 군에 입대했다가 중공군 포로가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북한으로 간 그는 결혼하여 아들 하나 낳고 살다가 손자들과 함께 탈북을 감행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중국에 가서 상봉을 추진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는 다시 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인물은 그동안의 4·3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바, 그것으로도 이 작품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본다.

김창집은 『제주작가』를 통해 ‘섬에 태어난 죄’ 연작¹²⁾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명분」(2000)은 4·3과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연관시킨 시의성 있는 작품이었고, 「산전」(2008)은 궁지에 몰린 무장대의 이덕구 사령관이 장두로서 자결을 택한다는 내용이다. 「협상」(2009)은 무장대 지도자 김달삼과 국방경비대 9연대장 김익렬 간에 있었던 4·28평화협상을 소설화하였으며, 「생사」(2010)는 양심과 배짱으로 예비검속자를 살려는 문형순 경찰서장의 일화를 다루었다. 김창집의 이 연작들은 대체로 4·3 관련 사건들을 소설적으로 재현하는 데에 비중을 두고 있다.

김관후는 「가족 수난」·「못 다한 이야기」·「그리운 섬」·「어화능창 어화로다」(2006) 등을 통해 주로 4·3의 상흔들을 변화되고 있는 현실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관련지으면서 짚어내었다.

11) 고명철, 「『제주문학-재일제주문학』과 민족문학의 연동에 관한 탐색」, 『문학, 전위적 저항의 정치성』, 케포이북스, 2010, 487쪽.

12) 김창집의 ‘섬에 태어난 죄’ 연작은 1995년 『섬의 문학』에 첫 작품이 발표된 이후 2010년까지 모두 10편이 나왔다.

하지만 그 치열성이나 울림의 정도는 작가의 이전 작품들(「당신에게」(1998)·「어허령 달구」(1999) 등)에 견주어 볼 때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홍의 「숨비소리」(2000)는 제주의 토속적인 정서와 4·3을 연결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작가의 작업이 이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전반적으로 볼 때, 소설 분야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는 공간의 확산, 즉 4·3에 대한 디아스포라적 접근을 도모한 점이 주목된다. 물론 이전에도 재일 제주인 관련 작품으로 현길언의 「귀향」(1982)이 있었고, 현기영의 「거룩한 생애」(1991)에서 38선 이북의 강원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도 했지만, 그러한 지역들이 본격적인 중심서사가 전개되는 장소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에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북한과 중국, 베트남 등지로 공간이 대폭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4·3의 전 지구적 인식을 지향하는 전략의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의 4·3소설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연애의 서사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복정』과 『비바리』는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4·3과 얽혀서 전개되는 청춘남녀의 열정적인 사랑과 돌연한 배신, 뜨거운 만남과 안타까운 이별 등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4·3문학의 대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연애의 서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태양의 눈물』과 『비바리』에서 보면 복수 모티프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작품도 나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작품에서도 그런 면이 드러났듯이, 복수 모티프는 흥미를 배가시키는 반면에 4·3의 비극을 개인적 탐욕의 결과로 해석해버릴 우려가 있다. 그것이 4·3의 갈등에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긴 하지만 역사적 상황이나 사회구조적인 면 등과 주도면밀하게 연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왜곡을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연애의 서사의 부각과 복수 모티프의 활용은 4·3문학이 대중적 서사와 만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중성은 정체된 4·3문학에서 모색해야 할 활로(活路)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다만 그것은 현실과 역사의 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4·3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요즘의 독자들은 4·3소설이 아직 새로운 전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좀 더 새로운 차원의 4·3소설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역사성과 대중성을 함께 만족시키는 과감한 상상력이 발휘된 작품이 창작되어야 할 시점이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¹³⁾의 출현이 매우 절실하다고 본다.

4. 희곡의 침체와 장편동화의 출현

희곡에서의 중심 작가는 200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장일홍과 김경훈이다. 장일홍은 무대극, 김경훈은 마당극 작품을 썼다.

장일홍은 「하모니카」(2000), 「이어도로 간 비바리」(2000), 「우리를 잠들게 하는 별들의 합창」(2002), 「불멸의 영혼」(2008) 등에서 4·3에 대해 부단한 천착을 보여주었다. 「하모니카」에서는 4·3 때 빨치산 활동을 했던 할머니, 의붓아비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어머니, 운동권 딸과 동생을 임신시킨 아들을 등장시키는 기막힌 사연들을 극화하였다. 「이어도로 간 비바리」는 용왕맞이굿과 제주의 근·현대사를 연결시켜 해녀 3대가 겪는 역사적 고난과 그 극복 과정을 통해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는 작품이고, 「우리

13) 고은주·고봉황·조중연을 제외한 2000년대 4·3소설 작가들은 모두 60대 이상이다.

를 잠들게 하는 별들의 합창」은 4·3에 연루된 가족 4대의 수난을 중심으로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백조일손지지의 비극을 엮어 내었다. 「불멸의 영혼」은 4·28협상의 주역인 김익렬 장군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휴머니스트적인 사랑의 실천을 부각시킨 장막극이다.

김경훈은 2000년대 초반에 의욕적인 마당극 대본을 선보였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2000)는 4·3 이후 드러난 레드콤플렉스에 대한 집단 광기를 실험적인 기법으로 포착한 작품이며, 「원죄」(2002)는 4·3의 충격적인 체험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앓으며 지난한 일생을 살아온 두 노인을 무대에 세웠다. 특히 「소옥의 노래」(2001)는 역사와 공간을 넘나드는 큰 스케일 속에서 4·3의 민족사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탐색한 작품이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희곡 분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장일홍의 「불멸의 영혼」 말고는 창작이 보이지 않는다.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극도 재공연 작품들이었다. 이러한 근래의 4·3희곡 침체 현상은 장편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시나리오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음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¹⁴⁾

한편, 박재형의 『다랑쉬오름의 슬픈 노래』(2003), 정도상의 『붉은 유채꽃』(2004), 현길언의 『그때 나는 열한 살이었다』(2002)·『다들 어디로 갔을까』(2010) 등 장편동화(소년소설)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나왔다. 『지상에 순가락 하나』를 청소년용으로 개작한 『똥강이』(2009)¹⁵⁾의 출간도 함께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들은 모두 잘 알려진 중견작가들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14) 장편영화 김경률 감독의 「끝나지 않은 세월」이 2005년에 상영되어 주목을 끌었고, 김경훈은 2010년 「제주상사화」라는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도 했다.

15) 물론 「지상에 순가락 하나」(1999)가 그렇듯이, 「똥강이」의 경우 4·3 관련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4·3문학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더욱 눈길을 끌었다.

박재형의 『다량쉬오름의 슬픈 노래』는 다량쉬굴 사건이 주요 모티프가 된 작품이다. 제주도 동부지역 마을을 주 무대로 고정태라는 소년의 눈을 통해 해방 정국에서 급격히 전개되는 4·3의 비극적인 양상을 담담하게 그려내었다. 정도상의 『붉은 유채꽃』은 ‘귓들으’ 마을의 봉달과 미자가 3·1사건 무렵부터 시작하여 사태의 한복판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당시 제주섬의 생활상과 더불어 입산, 항쟁, 소개, 도피, 학살 등 4·3의 전개과정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현길언의 소년소설들에는 모두 작가의 소년기 체험¹⁶⁾이 적잖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다들 어디로 갔을까』는 1948년 전후의 제주인의 삶이 한 소년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대자연의 동식물과 어우러진 가운데 의미 있게 재현되었다. 마소 키우기, 돼지 추렴, 새뿔 놓기 등의 제주섬의 풍속들이 대자연과의 호흡 속에 펼쳐지면서 아름다운 시절은 더욱 빛을 발한다. 아름다운 시절과 참혹한 역사가 절묘하게 만남으로써 그 의미가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4·3의 제3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4·3의 서사화 작업은 4·3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도 꼭 중요하다. 기억투쟁은 어린 세대에서부터 진행되어야 그 위력이 배가될 것이기에,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대한 작가들의 전략적 창작이 필요한 시점이다.

5. 마무리

이 글은 2000년대 4·3문학의 전개 양상을 정리하고 그 특징

16) 현길언은 1940년 생으로, 열 살을 전후하여 4·3을 겪었다.

적인 면모를 찾아보는 한편, 향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씌어졌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 분야에서는 창작 주체의 세대교체 현상과 더불어 시조 작품들의 약진이 주목되는 가운데, 제주어가 성공적으로 구사된 작품들이 적잖이 포착되었다. 앞으로는 4·3의 메시지를 내면화하는 시, 4·3장편서사시 등의 창작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소설에서는 장편이 비교적 많이 나왔다. 공간의 확산(디아스포라적 접근)을 도모한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점, 연애의 서사와 복수 모티프가 적극 활용된 작품이 나온 점 등도 특징적인 면모다. 이제는 역사성과 대중성을 함께 만족시키는, 과감한 상상력이 발휘된 작품이 젊은 작가들에 의해 씌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셋째, 희곡 분야는 2000년대 초입에 몇 편이 나온 이후 주춤해졌는데, 이는 4·3장편영화의 출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예전의 4·3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장편동화(소년소설)들이 연이어 출간됨으로써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4·3의 지속적인 기억투쟁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2000년대 4·3문학은 ‘전환기적 모색과 다양한 담론의 단계’ 정도로 명명할 수 있겠다. 4·3에 대한 공식역사가 재규정되고 4·3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문학의 양상도 기존의 대항담론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변화된 담론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근래 들어 4·3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작가들도 새로운 상황과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적으로는 4·3의 권력화 문제, 말하자면 진정성이 없이

4·3을 이용하는(선거 등에서)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가해자에 대한 추적과 형상화 작업도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다. 군인·서청의 눈물과 회한도 그려내야 한다. 일본으로, 북으로, 또 다른 곳으로 떠난 행방불명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것이야말로 과감한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문학은 항상 앞서나갈 수 있어야 한다. 상식적인 사실을 재확인하는 작품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언론매체가 아직 추적하여 밝혀내지 못하거나 역사학계에서 미처 정리하여 기술하지 못하는 부분을 문학이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언론이나 역사와 달리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자나 학자보다 앞서서 짚어 내거나 혹은 기자나 학자와 다른 방식으로 말할 때라야 4·3문학은 존재 의미가 뚜렷해진다. 4·3을 소재로만 삼아도 주목하던 시대는 벌써 오래 전에 끝났다.

주제어 : 4·3문학, 제주어(濟州語), 세대교체, 디아스포라, 연애의 서사, 복수 모티프, 기억투쟁

■ **참고문헌**

- 고명철, 「‘제주문학-재일제주문학’과 민족문학의 연동에 관한 탐색」, 『문학, 전위적 저항의 정치성』, 케포이박스, 2010.
- 김동윤,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 김동윤, 「4·3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 응구기 와 씨옹오, 이석호 옮김,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문학』, 인간사랑, 1999.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 *4·3문학 작품과 작품집의 경우는 부록의 도표로 대신함.

※ 부록: 2000년대 4·3문학 작품(집) 목록*

<시집>

| 시 집 | 작 자 | 출판사 | 출판 시기 |
|---------------|-----|--------|----------|
| 끝나지 않은 제주아리랑 | 김희철 | 다충 | 2000. 4. |
| 술꾼 함의에 대한 서명 | 안정업 | 다충 | 2000. 4. |
| 비·바람의 길 | 김성주 | 다충 | 2000.12. |
| 바다와 섬의 이중주 | 김용길 | 서울문화 | 2000.12. |
| 날밤 죽건 탁발에 문영 | 문무병 | 각 | 2000.12. |
| 신호등 쓰러진 길 위에서 | 김수열 | 실천문학사 | 2001. 1. |
| 허공 | 문충성 | 문학과지성사 | 2001. 1. |
| 길에 사는 민들레 | 양진형 | 다충 | 2001. 2. |
| 함덕리 | 김관후 | 제주문화 | 2001.10. |
| 상수리나무의 꿈 | 홍성운 | 태학사 | 2001.10. |
| 산이 산을 향해 자리하듯 | 양인택 | 문학21 | 2001.10. |
| 팔아이의 추억 | 김규중 | 내일을여는책 | 2002. 2. |
| 망각 속에 잠자는 들 | 문충성 | 제주문화 | 2002. 2. |
| 둘하르방 | 강통원 | 다충 | 2002. 4. |

* 이 목록은 김동윤의 「4·3문학 작품(집) 목록」,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을 토대로 2006년 이후의 자료를 새로 조사하여 작성한 것임.

| | | | |
|----------------------------|-----|--------|----------|
| 한라산의 겨울 | 김경훈 | 삶이보이는창 | 2003. 3. |
| 고운 여의학 죽고 | 김경훈 | 각 | 2003. 3. |
| 집대높이 | 김희철 | 온누리 | 2003. 4. |
| 잃어버린 파일 | 김희철 | 온누리 | 2003. 4. |
| 한라산(복원판) | 이산하 | 시학사 | 2003. 6. |
| 서울은 가져다 | 고정국 | 리토피아 | 2003. 8. |
| 수목한계선 | 정군칠 | 현대시 | 2003. 9. |
| 푸리의 노래 | 허영선 | 당그래 | 2004. 3. |
| 지만 울단 장클래기 | 고정국 | 각 | 2004. 9. |
| 몽개구름을 몽개고 | 나기철 | 문학의 전당 | 2004.12. |
| 풀잎들의 부리 | 김광렬 | 모아드림 | 2005. 4. |
| 화산도, 오름에 오르다 | 오영호 | 고요아침 | 2005. 4. |
| 가랑이 사이트 굽어보는 세상 | 양영길 | 영하 | 2005. 5. |
| 바람의 목례 | 김수열 | 애지 | 2006. 4. |
| 마지막 고드름 | 김상신 | 시선사 | 2006. 6. |
| 송악산 염소 똥 | 이애자 | 연인M&B | 2006.10. |
| 삼들이네 집 | 김경훈 | 리토피아 | 2007. 2. |
| 호랑이 밭뽕에 관한 제언 | 고춘옥 | 리토피아 | 2008. 6. |
| 눈물 밥 한습 잉걸 | 김경훈 | 심지 | 2008.11. |
| 쇠뚝구리의 무단행단 | 장영춘 | 연인M&B | 2008.11. |
| 누구라 종일 풀리나 | 오승철 | 고요아침 | 2009. 8. |
| 물집 | 정군칠 | 애지 | 2009. 8. |
| 굿모닝 강아지똥 | 한희정 | 동학사 | 2009. 8. |
| 봄날 아침부터 가을 오후까지 | 김석교 | 심지 | 2009.11. |
| 생각을 흠치다 | 김수열 | 삶이보이는창 | 2009.12. |
| 빛과 그늘 | 강통원 | 다층 | 2010. 4. |
| 풀의 법문 | 문영종 | 각 | 2010. 7. |
| 그대가 부르지 않아도 나는 그대에게로 간다 | 김순남 | 각 | 2010. 7. |
| 갈무리하는 하루 | 김영기 | 나우 | 2010. 7. |
| 그해 겨울은 출기도 하였네 | 강덕환 | 풍경 | 2010.10. |
| 그리움의 원근법 | 홍경희 | 동학사 | 2010.10. |
| 달과 별이 섞어놓은 시간 | 김영미 | 정인 | 2010.10. |
| 구멍 | 김성주 | 심지 | 2010.12. |
| 밀리언 달러 | 이애자 | 홍진복스 | 2010.12. |
| 위태로운 잠 | 김순선 | 문화열림 | 2010.12 |
| 허물어버린 집 | 문충성 | 문학과지성사 | 2011. 8. |

<소설>

| 작 품 | 작 자 | 발표 시기 | 발표지 | 비고 |
|------------|-----|------------|----------------------|--------------------------|
| 습비소리 | 이재홍 | 2000. 6. | 제주작가 | |
| 우화 | 김창집 | 2000. 6. | 제주작가 | |
| 백록담 연가 | 노순자 | 2000.11. | 장편 | 열린 권 |
| 죽은 장군의 증언 | 오성찬 | 2000.12. | 장편 | 푸른사상 권 |
| 명분 | 김창집 | 2000.12 | 제주작가 | |
| 가신 님 | 오경훈 | 2001.12. | 제주작가 | |
| 신화를 삼킨 섬 | 이청준 | 2003. 5. | 장편 | 열린원 권 |
| 빌린 누이 | 오경훈 | 2003. 6. | 제주작가 | |
| 이쿠노 아리랑 | 김길호 | 2003. 9. | 월간문학 | |
| 기념탑 | 오경훈 | 2004.12. | 제주작가 | |
| 유한 | 오경훈 | 2005. 5. | 「제주항」 | 각 권 |
| 신들의 황혼 | 고은주 | 2005. 7. | 장편 | 문이당 권 |
| 가족 수난 | 김관후 | 2006. 6. | 「본풀이」 | 제주콤 권 |
| 본풀이 | 김관후 | 2006. 6. | 「본풀이」 | 「저 섬에 불던 바람」(1999)을 개작함. |
| 아버지 | 김관후 | 2006. 6. | 「본풀이」 | 「아버지와 아들」(2001)을 개작함. |
| 못 다한 이야기 | 김관후 | 2006. 6. | 「본풀이」 | |
| 그리운 섬 | 김관후 | 2006. 6. | 「본풀이」 | |
| 어화능창 어화로다 | 김관후 | 2006. 6. | 「본풀이」 | |
| 연복정 | 김시태 | 2006.12. | 장편 | 선 권 |
| 산전 | 김창집 | 2008. 2. | 제주작가 | |
| 태양의 눈물 | 고길지 | 2009. 3. | 장편 | 한국문인 권 |
| 협상 | 김창집 | 2009. 9. | 제주작가 | |
| 길-루쟁영역의 확산 | 조중연 | 2009.3-12. | 제주작가 | 장편 4회 연재 |
| 생사 | 김창집 | 2010. 6. | 제주작가 | |
| 비바리 | 고봉황 | 2010. 9. | 장편 | 왕의서재 권 |
| 부전자전 표류기 | 양영수 | 2010.12. | 「악마는 숨어서 웃는다」(심지) 게재 | 「그들의 부자유친」(2008)을 개작함. |

<희곡>

| 작품 | 작자 | 발표 시기 | 발표지 | 비고 |
|--------------|-----|----------|-----------------|-----|
| 하모니카 | 장일홍 | 2000. 2. | 문학과창작 | |
|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 김경훈 | 2000. 3. | 「살짜기 읊서예」 게재 | 각 권 |
| 이에도로 간 비바리 | 장일홍 | 2000.10. | 자유문학 | |

| | | | | |
|----------------------|-----|----------|------|--|
| 소속의 노래 | 김경훈 | 2001.12. | 제주작가 | |
| 우리를 잠들게 하는 별들의 합창 | 장일홍 | 2002. 2. | 월간문학 | |
| 원죄 | 김경훈 | 2002.12. | 제주작가 | |
| 불멸의 영혼 | 장일홍 | 2008. 3. | 펜문학 | |

<장편동화(소년소설)>

| 작품 | 작자 | 발표 시기 | 발표지 | 비고 |
|------------------|-----|----------|-----|--------|
| 그때 나는 열한 살이었다 | 현길언 | 2002. 9. | 장편 | 계수나무 刊 |
| 다량취오름의 슬픈 노래 | 박재형 | 2003. 4. | 장편 | 배틀북 刊 |
| 붉은 유채꽃 | 정도상 | 2004. 5. | 장편 | 푸른나무 刊 |
| 다들 어디로 갔을까 | 현길언 | 2010. 3. | 장편 | 계수나무 刊 |

〈ABSTRACT〉

The Aspects and Meaning of Jeju Uprising Literature in the 2000s

Kim, Dong-Yun

This article's intention is to organize the aspects of literary developments of the Jeju Uprising in the 2000s, find out their distinctive features, and explore their desirable direction to take in the future. The summary of discussed points is as follows:

First, in the poetry field, one thing notable is that there has been a generational shift in the main body of creation and that there are not a few literary works successfully employing the Jeju language. Afterwards, it will be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reation of poems internalizing the message of the Jeju Uprising and epics depicting the Jeju Uprising.

Second, in novel, full-length novels are relatively noted. Also notable is that literary works contriving spatial dissemination(a diasporic approach) started to come out in earnest, and that literary works aggressively describing love and using revenge motif. Now it is time that young writers should write works satisfying readers in terms of history and popularity by exercising imaginative power

Third, plays held back after a few came out in the early 2000s. It is thought to be related to the advent of movies about the Jeju

Uprising. On the other hand, long fairy tales (juvenile novels), which had not existed before, were published and drew attention. And it is a desirable phenomenon in that this continually stimulates the struggle to remember the Jeju Uprising.

All things considered, it is safe to say that Jeju Uprising literature in the 2000s is in the stage of a turning point and a variety of discussion." The April 3rd Jeju Uprising was officially redefined and April 3rd Movement faced a new phase. Literary aspects also started to develop a variety of new discourse as well as counter discourse.

Key words : Jeju Uprising literature, Jeju language, generational shift, Diaspora, epic of love, revenge motif, struggle of memory

